

2024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정답

1	④	2	④	3	⑤	4	②	5	②
6	①	7	③	8	④	9	②	10	⑤
11	④	12	③	13	②	14	④	15	①
16	⑤	17	②	18	②	19	②	20	⑤
21	①	22	⑤	23	③	24	③	25	④
26	①	27	④	28	①	29	③	30	④
31	③	32	④	33	①	34	⑤	35	①
36	②	37	①	38	⑤	39	④	40	①
41	④	42	③	43	①	44	⑤	45	③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4문단에서 '얼굴을 연구하는 ~ 드러난다는 것입니다.'라고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발표 자료 활용하기

북쪽인 경기나 충청 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나무 장승에는 북방형 얼굴의 특징이 드러나고, 남쪽 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돌 장승에는 남방형 얼굴의 특징이 드러날 뿐, 장승의 얼굴 유형으로 인해 장승을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해 [자료 2]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을 제시하여 나무 장승을 관모의 유무로 구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② [자료 1]을 제시하여 장승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래된 장승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③ [자료 1]을 제시하여 장승에 적힌 '서울 칠십 리'를 통해 장승의 이정표 기능을 보여 주었다. ④ [자료 2]를 제시하여 나무 장승에는 긴 얼굴과 뾰족한 눈매의 북방형 얼굴의 특징이, 돌 장승에는 동글동글한 인상의 남방형 얼굴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설명하였다.

3. [출제의도] 반응 분석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렸으나 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장승이 사찰 입구에 세워진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장승이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는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장승에 돌 장승도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유익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④ '학생 1'은 책을 통해, '학생 2'는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

** 화법·작문 **

4. [출제의도] 토론의 입론 이해하기

(가)의 '찬성 1'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사고 처리나 피해 보상을 비교적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은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를 드러낸 것일 뿐, 제도 개선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쟁점을 추가한 것도 아니다. ⑤ 소형 드론이 문제를 일으켜도 소유주를 알 수 없다는 현 제도의 문제점은 설명하고 있으나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찬성 1'은 상대측이 제기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 신고 대상 드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을 뿐, 상대측의 질문 내용이 논제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① [A]의 '반대 2'가 '이 경우 ~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상대측의 의견을 통해 추론한 내용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B]의 '반대 2'가 '언급하신 자료는 ~ 아니지 않아요?'라고 말한 부분에서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B]의 '찬성 1'이 '네, 맞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상대측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면서도 '2kg 이하 ~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자신이 제시한 근거가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반대 2'가 [A]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라고 말한 부분과 [B]에서 '조사 대상 ~ 일으켰다고 하셨는데,'라고 말한 부분에서 상대측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가)의 '찬성 1'이 '현재 시행 ~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에서 언급한 기체 신고 기준과 '하지만 드론 ~ 조종할 수 있어,'에서 언급한 조종 자격 차등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1문단에서 '현행 드론 실명제에서는 ~ 차등화하고 있다.'를 통해 현행 드론 실명제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② (나)의 2문단에서 언급한 다른 나라의 기체 신고 기준은 (가)의 '찬성 1'의 '미국과 중국 ~ 하고 있습니다.'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나)의 2문단에서 우리나라의 기체 신고 기준과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③ (가)의 '찬성 1'이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을 ~ 있을 것입니다'에서 언급한 드론 실명제 개정 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나)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성숙한 드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의 3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나, 제도의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⑤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 및 전망과 드론 활용 분야의 예시를 (나)의 4문단에서 '드론 산업의 ~ 것이다'와 '배달 ~ 것이다'를 통해 각각 제시하고 있으나, (가)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7.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나)의 마지막 문단과 <보기>를 비교하면, <보기>에는 (나)의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 확대될 것이다.'라는 드론 산업의 시장 규모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적절한 규정과 ~ 발전할 것이다.'라는 드론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작문 **

8.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학생의 초고에 청소년기 시력 이상의 종류별 발생 원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1문단에, 눈은 일상생활의 많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건강한 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 성장기에 이미 시력 이상 상태에 놓인 청소년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시력 이상 상태에 해당하는 학생이 약 73%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3문단에, 시력 이상 상태인 청소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굴절 이상으로 인해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제시되어 있다. ⑤ 3문단에, 고도 근시의 경우 다양한 안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둘 사이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9. [출제의도] 글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편집부장의 조언 중 요즘 청소년들의 눈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청소년 시력 이상 적신평'에서 나타내고 있고, 독자에게 당부하는 바는 '일상 속 실천으로 눈 건강을 지키자'에서 나타나고 있다.

10.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ㄱ-1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력 이상 상태인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연도별로 보여주는 자료이며, ㄱ-2는 시력 이상 상태이지만 시력 교정을 하고 있지 않은 고1 학생의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ㄴ은 청소년기에 시력 교정이 필요한 이유와 고도 근시에 따른 안질환 발생 위험 증가에 대해 알려 주는 자료이다. ㄷ은 디지털 기기를 근거리에서 장시간 볼 경우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ㄴ과 ㄷ 모두 근시의 시작 시기와 근시의 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ㄴ과 ㄷ을 활용해 일찍 시작된 근시일수록 고도 근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자료 활용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1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력 이상 상태인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연도별로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청소년 눈 건강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2문단에 추가하기에 적절하다. ② ㄴ은 고도 근시의 위험성 및 고도 근시가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의 종류를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고도 근시의 위험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3문단에 추가하기에 적절하다. ③ ㄷ은 디지털 기기를 근거리에서 장시간 볼 경우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집중적으로 볼 때는 적절히 눈의 피로를 풀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4문단에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④ ㄱ-2는 시력 이상 상태이면서도 교정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30%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ㄴ은 시력 교정이 필요한데도 시력 교정을 하지 않으면 시력이 더 저하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ㄱ-2와 ㄴ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한 시력의 점검 및 교정 노력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자료로 4문단에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 문법 **

11. [출제의도] 표제어의 표기 이해하기

'뒤집히다'는 접두사 '뒤-'와 피동 접사 '-히-'가 동시에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뒤집-히다'와 같이 피동 접사 앞에 붙임표로 분석하여 표기한다.

① '1월'과 '9월'은 사전에 '일월'과 '구월'로 표기되므로 표제어가 가나다순으로 배열된다는 원칙에 따라 '1월'보다 '9월'이 먼저 제시된다. ② '새

해'는 '새'와 '해'가 합쳐진 합성어이므로 '새-해'와 같이 붙임표로 분석하여 표기한다. ③ '비웃음'은 '비웃다'에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비웃-음'과 같이 붙임표로 분석하여 표기한다. ⑤ '기쁨'은 '기쁘다'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지만 '기쁘-+ㅁ'과 같이 구성 성분이 음절로 나누어지지 않아 붙임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기쁨'으로 표기한다.

12. [출제의도] 표제어의 순서 파악하기

표제어가 동음이의어일 경우 어휘 형태, 문법 형태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법 형태 중에서는 어미, 접사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전에는 명사 '이'가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어미 '-이'가 수록되어 있고, 마지막 순서로 접사 '-이-'가 수록되어 있다.

① 『표준국어대사전』은 흔히 쓰는 비표준어도 수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표준어 표제어의 경우 '→'를 활용하여 표준어의 뜻풀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윗어른'은 비표준어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어서 선정된 표제어임을 알 수 있다. ② 표제어 배열에 있어 중성의 경우 '내, 기, ㅣ'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으므로 '웁지', '윗어른', '이상^결정'의 순서로 사전에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야 하는 표제어는 결합하는 부분에 '-'를 붙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어미 '-이'와 접사 '-이-'는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야만 쓸 수 있는 표제어임을 알 수 있다. 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단어 이하의 단위만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어의 경우 구까지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상^결정'은 구이지만 전문어이기 때문에 표제어로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탐구하기

'학생 1'이 쓴 '숨이불[숨:니불]'에서는 첨가가 일어나고, '학생 3'이 쓴 '뱀히다[발피다]'에서는 축약이 일어난다. 앞 학생이 쓴 단어에서 일어나지 않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쓰는 활동이므로 첨가와 축약을 제외하고 교체 또는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를 쓰면 된다. '옷맵시[온맵씨]'에서는 다른 음운 변동 없이 교체만 일어나므로 적절하다.

① '삿일[상닐]'에서는 탈락, 교체, 첨가가 일어난다. ③ '겉핥기[거탈기]'에서는 교체, 탈락, 축약이 일어난다. ④ '색연필[생년필]'에서는 첨가, 교체가 일어난다. ⑤ '늪죽하다[넙쭈가다]'에서는 탈락, 교체, 축약이 일어난다.

14. [출제의도] 인용 표현 탐구하기

ㄱ은 '그는 나에게 내가 자기의 책을 보았냐고 물었다'와 같이 간접 인용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인용 문장과 비교했을 때, 인용 조사(라고 → 고), 인용절의 대명사(당신 → 내, 저(의) → 자기(의)), 높임 표현(-시(였)- → (-았-)), 종결 어미(-습니까 → -냐)에 변화가 생긴다. ㄴ은 '나는 어제 그에게 그녀는 오늘 도착한다고 말했다'와 같이 간접 인용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인용 문장과 비교했을 때, 인용 조사(라고 → 고), 인용절의 시간 표현(내일 → 오늘), 종결 어미(-ㅂ니다 → -ㄴ다)에 변화가 생긴다.

15. [출제의도] 중세국어 'ㅎ' 중성 체언 이해하기

'내ㅎ'와 '이'가 결합할 때,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이므로 '내ㅎ'와 '이'가 결합하면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어서 '내히'라고 써야 한다. '우ㅎ'와 '과'가 결합할 때, '과'는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이므로 '우ㅎ'와 '과'가 결합하면 'ㅎ'

은 뒤따르는 'ㄱ'과 어울려 'ㅋ'으로 나타나서 '우과'라고 써야 한다. 따라서 ㉠에는 '내히'를, ㉡에는 '우과'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인문 **

□ 출전 : (가)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나)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1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현존재'나 '세인' 등의 개념을 설명하며 하이데거의 관점이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는 '타자'나 '죽음의 우연성'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과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르트르의 관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① (가)는 하이데거가 언급한 특정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미 변화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죽음에 대한 사르트르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③ (가)는 하이데거가 설명한 죽음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서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타자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청년'이 책을 쓰고 죽은 상황을 예로 들기는 하였지만, 이 청년을 역사적 인물로 볼 수 없으며 청년의 삶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17.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현존재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래적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죽음을 은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4문단을 통해 죽음을 외면할 때 고유성을 잃게 됨을 알 수 있고, (가)의 2문단을 통해 세인(㉠)은 고유성을 잃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나)의 3문단과 4문단을 통해 타자(㉢)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며 타인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죽음은 나의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며, 삶의 일부로서 존재하지 않고 나의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나)의 3문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으며 죽음은 그저 객관적인 사실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야스퍼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죽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야스퍼스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①,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죽음에 대한 인식 없이도 주체적 선택을 통해 실존

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인간이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과, 인간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실존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죽음을 객관적 사실로만 보고 있으므로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인 의미로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가)의 5문단을 통해 하이데거는 본래적 삶을 살기 위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의 4문단을 통해 사르트르는 실존적 삶을 살기 위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닌 주체적 선택과 책임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사르트르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에 대해 현존재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것이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을 세인으로 존재하며 비본래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별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을 현존재가 세인으로 존재했던 삶을 반성하는 자세라고 여길 것이다. ③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고인의 삶이 타자의 시선에서 재구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주는 것을 나의 삶이 타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④ (가)의 5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실존적 삶으로 보았고,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실존적 삶으로 보았다. 따라서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모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삶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판단할 것이다.

** 기술 **

□ 출전 : 임지순 역, 『리얼월드 암호학』

2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서 제한적 동형암호는 컴퓨터의 특정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가 아니라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검색이나 통계적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암호키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부트스트래핑의 과정을 수행하면 그 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롯값은 모두 제거되지만 부트스트래핑의 과정에서 새로운 오롯값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로 생성된 새로운 암호문에 오롯값이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오롯값이 커지는데 특히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롯값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동일한 암호문의 연산을 수행할 때 덧셈 연산보다 곱셈 연산을 많이 수행할수록 부트스트래핑이 더 빨리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과 4문단에서 암호문에 오롯값이 누적되어 한계치에 이르면 지속적인 연산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해 부트스트래핑은 암호문의 연산 과정에서 오롯값이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부트스트래핑은 이전 암호화에 사용한 암호키와는 다른 암호키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재암호화하고 이를 복호화 회로를 통해 복호화하면 이전의 암호문이 복호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서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가 암호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오롯값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7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가 안전성을 위해 무작위로 오롯값을 추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3문단과 5문단에서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가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하여 각 비트별로 암호화하고 개별 비트 단위로 암호문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문단과 7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가 데이터를 정수 단위로 암호화하고 연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하여 각 비트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암호문이 원문에 비해 10~100배 가량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원문을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암호문의 값이 원문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7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와 달리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연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완전 동형암호는 암호문을 연산하는 횟수에 제한 없이 덧셈, 곱셈 연산에 동형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6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연산할 때는 각 원문을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끼리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만약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암호키로 나누어 나머지 값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사용된 암호키는 11, 13이고 원문 27을 암호키 11로 나눈 나머지 값 5와 원문 15를 암호키 11로 나눈 나머지 값 4를 덧셈 연산하면 9가 된다. 그리고 원문 27을 13으로 나눈 나머지 값 1과 원문 15를 암호키 13으로 나눈 나머지 값 2를 덧셈 연산하면 3이 된다. 이때 암호문의 연산 결과값인 9와 3은 각각 암호키 11과 13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암호키로 다시 나눌 필요가 없다.

① <보기>에서 원문 연산의 결과값인 42를 암호키 11과 13으로 암호화하면 각각 9와 3이 된다. ② 6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암호키의 개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

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각 원문에 대해 암호문의 개수가 2개이므로 각 원문을 암호화한 암호키의 개수가 총 2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원문으로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키와 원문을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원문을 정수 단위로 암호화하고 연산하기 때문에 암호문과 암호문의 연산 결과값은 모두 정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이른’은 오롯값이 한계치에 다다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어떤 수준에 이르러 다다른’이라는 의미의 ‘도달(到達)한’과 문맥상 바꾸어 쓸 수 있다.

① ‘달성(達成)되고’는 ‘목적한 바가 성취되고’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提示)한다’는 ‘어떤 의사를 글이나 말로 드러낸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분리(分離)된다’는 ‘서로 나뉘어 떨어지거나 그리 된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결성(結成)된다’는 ‘단체나 조직 따위가 만들어진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현대시 **

□ 출전 : (가) 윤동주, 「위로」
(나) 황동규, 「달밤」

26.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파득거리도’, ‘끝없는’ 등의 시어를, (나)는 ‘친구 몇몇’, ‘달빛’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나)는 ‘달빛’이라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27.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나)에서 화자는 달빛이 비추는 들판을 걷는 것이 외로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친구 몇몇 그들에게’ 보여 주는 시점을 ‘이제’를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몇몇과의 만남으로 인해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나비’는 우리 민족을, ‘꽃밭’은 ‘나비’가 도달하고자 하는 공간 또는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비’가 ‘꽃밭’에 ‘날아’드는 것을 화자가 일제 강점기 암울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 ‘거미란 놈’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려 ‘나비’가 ‘날개를 파득거리’는 것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얼음을 밟’으며 ‘얼은 들판을 걸어가’는 상황에 있으며 이는 자연물을 통해 1950년대의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현대소설 **

□ 출전 : 공선옥, 「먼 바다」

2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술을 먹고 ~ 되고 말았다.’라는 부분에서 ‘칠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칠환이 가구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이제 물이 ~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라는 부분에서 ‘덕님’이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슬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득한 달빛 ~ 반출이 될 거였다.’, ‘문짝을 떼어 내느라’라는 부분에서 두 사나이가 동네에서 뜯은 문짝이 고물상으로 옮겨질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을 타서 제 병원비로 다 써 버린 칠환’이라는 부분에서 ‘칠환’이 고향 집에 대한 보상금을 병원비로 모두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렇게 해서 ~ 아닐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명호’가 버려진 짐승들을 쫓는 달밤의 사냥에 동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인 척하는 두 사나이의 말에 ‘여간 떨리는 게 아니다’, ‘떨고 있는 표시를 내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칠환이 이 상황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자신감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칠환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임기응변, 그것은 ~ 최대의 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상대방들의 행동에 대해 ‘땀땀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땀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두 사나이가 빈집의 고물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도 자신들의 정체를 숨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칠환이 ‘생포된 짐승같이 바들바들 떨’자 두 사나이가 고물 장수라는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보아 떨고 있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장면의 기능 파악하기

[A]는 방송국 사람이 수물민인 덕님의 집에 찾아와 촬영을 하는 장면이다. 방송국 사람이 덕님에게 마지막 설 준비를 하는 기분을 묻자 덕님은 울음을 터뜨렸는데 이에 대해 방송국 사람은 덕님의 처지에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갈갈대며 웃’고 ‘설 준비하는 흥내’를 내라고 하며 덕님의 모습을 촬영한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언론의 면모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덕님이 사진 찍히는 것이 ‘질색’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덕님이 방송국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알리려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덕님은 방송국 사람의 질문에 따라 답을 하고, ‘설 준비하는 흥내’를 내라는 요구에 따라 물을 붓고 불을 땀다는 점에서 방송국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덕님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애쓴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수물 예정지에 고물을 뜯으러 온 대석은 주민들의 눈을 피해 들어온 외지인이다. 칠환은 수물 예정지가 된 고향으로 돌아와 이미 보상금을 받았지만 병원비로 써 버린 상태이다.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마을을 떠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칠환이 말하는 ‘손댄 물건값’은 칠환의 재산이 아니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주민 사이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덕님의 자식들은 집이 수몰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수물 보상금을 나눠 가진 뒤에는 덕님을 찾아와 보지도 않는다. 따라서 개발 과정에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

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② 수몰 예정지가 된 고향으로 돌아와 기름값을 벌기 위해 짐승 사냥을 하는 칠환에 대해 유랑하는 이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③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값나가는 소나 개는 처분했기 때문에 마을이 값이 안 나가는 고양이, 염소, 닭의 세상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고양이나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되어 있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 주민들이 떠나 빈집이 늘어난 수몰 예정지의 상황을 보여 준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⑤ ‘아내와 아이가 기름이 없어’ 떨고 있다는 칠환의 말에 두 사나이는 짐승 사냥에 동참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사나이가 칠환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을 통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 사회 **

□ 출전 : 박상기, 『형법학』

3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 따르면, 책임 조각 사유의 예로 강요된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면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구성 요건 해당성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기술을 통해 구성 요건이 행위와 결과를 모두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1, 2문단에 따르면, 구성 요건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1문단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 따르면,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상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3문단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4문단의 인식 있는 과실의 예는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주의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하는 것은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 그 행위가 과실과 고의로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① 3문단에 따르면 고의는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고, 과실은 죄를 범할 의사가 없지만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주의로 인해 죄를 범할 가능성은 과실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의가 과실보다 부주의로 인해 죄를 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분하는

이유로도 볼 수 없어 적절하지 않다. ② 과실의 유형을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로 나누는 것이 과실과 고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④ 3, 4문단에 따르면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모두 결과(범죄)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므로 과실과 고의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3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5문단에 따르면, 통상의 과실은 일반인에게,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적용되는 과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상 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이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얼마만큼 예견했는지의 차이에 의해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5문단에 따르면,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은 계속적·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보다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로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 따르면,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나누고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에 A 씨가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 점을 통해 A 씨의 사례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한 ‘인식 있는 과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문단에 따르면,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A 씨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의 인식 여부는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④, ⑤ 1, 2문단에 따르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A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것은 법원이 A 씨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A 씨가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행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위법성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A 씨에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A 씨가 손님의 다툼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는 ‘어떤 사태나 일을 벌이거나 터뜨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①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 ②의 ‘일으키며’, ④의 ‘일으킨다’는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 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의 ‘일으켰다’는 ‘일어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의 ‘일으키기’는 ‘무엇을 시작하거나 흥성하게 만들다’의 의미로 쓰였다.

** 갈래 복합 **

□ 출전 : (가) 작자 미상, 『합강정가(合江亭歌)』
(나) 이현보, 『귀전록(歸田錄)』
(다) 남구만, 『조설(釣設)』

3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한 마을 닭과 개 다 먹어 치우고 집집마다 또 거둔단 말인가’를 통해 지배층의 계속되는 수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인사 변한다고 산천이야 변할 것인가’를 통해 화자가 농암에 올라 둘러본 자연이 인간사와 대비하여 변함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미루어 이용한다면 그것이 어찌 낚시 놓는 데만 응용되겠는가?’를 통해 글쓴이가 그 사람이 말한 고기 잡는 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9.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산천’은 화자가 농암에 올라 둘러본 자연으로, 변화하는 인간사와 대비되는 공간이며 불변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산천이 인사로 변해 버린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논밭’은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데, 관찰사의 순행을 위해 논밭이 길로 넓혀지고 있다. 따라서 백성들이 빼앗긴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텃 빈 부엌’은 아낙이 방아품 샅으로 받은 양식을 관아에 바치기 위해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공간으로, 음식을 만들어도 담을 그릇마저도 없는 공간이다. 따라서 ‘텃 빈 부엌’을 아낙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③ ‘초당’은 청풍명월이 나며 들며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화자가 청풍명월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화자가 돌아가고 싶은 자연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당을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연못가’는 글쓴이가 낚시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고, 고기를 잡는 묘리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배움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시간의 의미 파악하기

(나)의 화자는 팔십 세를 넘어서도 봄(㉠)을 여러 번 맞이했고, 공명을 누리며 장수하고 있음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임금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되는 기쁨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임금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의 글쓴이는 여름(㉡)에 이웃 사람이 나에게 낚싯대를 만들어 주어 낚시를 하게 되면서 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고 고기 잡는 묘리에 대해 들으며 깨달음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은 글쓴이가 낚싯대를 만들어 준 이웃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41.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가)의 ‘참람한 과거장서 재주 겨루는 유생들아 / 오십삼 주 시예향에 의로운 선비 하나 없단 말인가’를 보면, 화자는 분수에 넘치는 과거장에서 유생들이 재주를 겨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전라도에 의로운 선비들이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장’에서 ‘재주’를 ‘겨루는’ 것을 유생들이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 과거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한 마을 닭과 ~ 못 살겠네’를 보면, 관찰사를 위한 뱃놀이를 위해 집집마다 세금을 또 걷는 것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를 ‘다시’ 하게 되면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한 것을 지배 계층의 유희를 위해 수탈을 당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낙토에서 태어난 ~ 가잔 말인고’를 보면, 관찰

사의 뱃놀이를 위한 수탈로 인해 백성들이 집과 논밭을 다 팔고 유랑길에 오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림주구로 인해 유랑의 길을 떠나야 하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③ ‘노예 차출~트집잡네’를 보면, 뇌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하는 지배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뇌물을 받으며 관리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망극하도다 나라~화가 미치리라’를 보면, 임금님의 은혜와 관찰사에게 임금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배은망덕’하면 ‘자손에게 화가 미치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임금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관찰사를 향한 경고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그러나 내가 자네에게~그 묘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일세’를 통해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고기 잡는 방법(㉔)대로 낚싯대를 물속에 드리워 놓고 정신을 집중하여 늘 그 방법을 익히면 고기 잡는 묘리(㉕)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㉔에 집중하기 위해서 ㉕에 대한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낚싯대를 물속에~묘법을 이해하게 될 것일세’를 통해 ㉔를 꾸준히 반복하여 익힌다면 마음은 스스로 ㉕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는 내가 낚던~세는 것 같았다’를 통해 ㉕를 터득한 그 사람은 ㉔만을 알고 있는 글쓴이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고기를 낚고 있다. 따라서 ㉕를 알게 된 후에는 ㉔만 알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전소설 **

□ 출전 : 작자 미상, 『세경본풀이』

43.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자청비가 가져온~일어나 앉았다.’는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꽃으로 죽은 문 도령을 살려 내는 장면이고, ‘자청비는 천자국~끊어져 버렸다.’는 자청비가 난을 일으킨 군사들을 꽃을 사용하여 물리치는 장면이다. 꽃으로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모두 비현실적인 요소이며, 자청비가 서천꽃밭의 꽃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자청비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절하다.

③ ‘군사들이 건삼밭의 늪은 삼 쓰러지듯’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군사들이 힘없이 쓰러지는 장면을 비유한 것이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낸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자청비는 문 도령과 함께~천자국으로 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천자국에 난이 일어나자 난을 평정하기 위해 자청비와 문 도령이 천지왕을 찾아간 것이지 천지왕이 자청비를 찾아간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청비가 문 도령에게 ‘나와 닮은 남동생’의 이름이 ‘자청 도령’인데 ‘같이 벗어나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대감이 자청비에게 ‘부모 기일 제사’를 챙기려 하는 것이 ‘기특하구나’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머슴이 ‘자청비가 시킨 대로 손을 한 번 탁’ 치자 ‘화들짝 놀란 군졸들’이 겁을 먹고 ‘도망쳐 버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청비가 ‘천자국 병사들을 철수시키고는 수레말망약심꽃’을 뿌리자 ‘난을 일으킨 군사들’의 ‘숨이 끊어져 버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자청비가 무쇠 방식을 ‘우리 낭군이 깔고 앉았던 방식’이라고 말한 것은 군졸들이 문 도령의 힘이 세다고 오해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이다. 따라서 군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볼 수 없다.

① 자청비가 문 도령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거짓 말을 하고, 남복을 입고 ‘자청 도령’ 행세를 한 것은 남성인 문 도령과 동질성을 획득하여 함께 글공부하러 가기 위한 속임수로 볼 수 있다. ② 자청비가 ‘다른 선비들처럼 글공부하러 가고 싶’다고 하자 ‘계집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에’ 쓰냐며 글공부를 제지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청비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있다. ④ 문 도령이 하늘 무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위협을 느낀 자청비는 죽은 문 도령이 있는 방에 ‘매미’, ‘등에’, ‘봉황새’를 미리 걸어 두어 이들이 내는 소리가 문 도령이 ‘코 고는 소리로 들’리게 만들었다. 또한, 머슴에게 박수 소리를 내게 하여 군졸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게 만든 것은 문 도령이 살아 있는 것처럼 상황을 미리 조작하여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자청비는 천지왕에게 ‘제주 땅에 내려가서 심을 오곡의 씨앗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여 ‘여러 곡식’을 받는다. 이것은 자청비가 제주 백성이 농사 짓고 살게 해 주기 위해 씨앗을 받은 것으로, 자청비가 지닌 세경신으로서의 면모로 볼 수 있다.